

韓·日兩國 人體語의 語源 究明

李 在 淑 ※

國際電氣企業(株)常務理事

I. 韓·日兩國 人體語의 語源 究明

日本은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文化·經濟等多方面에 걸쳐서 過去부터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韓日兩國語가 어떤 關係를 가지고 있는지 究明하는 것은 技術交換에도 큰 意義를 가지고 있다.

II. 韓日兩國의 人體語의 語源

韓日兩國語中 그 語意가 같은 單語를 比較하면 熊은 韓國語로 곰, 日本語는 「구마」, 群은 韓國語로 무리, 日本語는 「무래」, 友는 韓國語로 동무, 日本語로 「도모」로 나타나 아주 親近함을 나타내는 單語도 있다.

또 한편 兩國語의 같은 뜻을 갖은 單語를 適切한 順序로 直列配分해도 이러한 現象이 나타난다.

風은 日本語로 「가재」 韓國語로는 「바람」이라고 말한다. 兩國語를 이 順序로 配合하면 「가재 바람」이 된다.

韓國語에서 強風을 「거센바람」이라고 말한다 即 韓日兩國語는 거센바람의 祖語인 「가시바람」이 分離하여 이루어졌다고 斷定할 수 있다.

또 寒은 日本語로 「사모이」 韓國語로 「추워」이다. 兩國語의 語幹을 直列로 連結하면 「사모추워」가 되고 이 말은 韓國語로 아주 춥다는 뜻이 된다. 兩國語는 「사모추워」가 分離하여 成立되

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紙는 韓國語로 「종이」, 日本語로 「가미」이다 中國에서 渡來한 紙物은 始初 絹 또는 그림을 그리는데 좋은 質(良質의 物件)이라고 불리우고 韓國語에서는 漸次 좋은 이 卽, 종이로 變하고 日本語에서는 좋은 質의 「감」만이 남아서 「가미」로 變했다고 解釋할 수 있다. 本文에서는 前述한 並列 또는 直列法을 利用하여 人體器官에 關한 語源을 究明하고 韓日兩國語가 어떤 關係를 가지고 있는지 檢討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人體語에서 또 어떤 語彙가 派生하고 있는지도 究明하고자 한다.

1. 鼻(日本語·하나, 韓國語·코)

鼻의 祖語는 兩國語를 合한 「하나코」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코」의 뜻은 「하나」가 韓國語數詞 하나(一)에 該當하고 顔面에 一介라는 뜻에서 왔고 「코」가 元來의 鼻를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코」의 原形은 「하나고」이고, 「하나고」의 「고」에서 고(日·子), 곰다(韓, 美)의 「고」가 發生하였다.

上記에서 (日)는 日本語, (韓)는 韓國語의 省略이다.

2. 口(韓·입, 日·구지)

口의 祖語는 「히구지」로 看做된다.

「히구지」의 「히」는 數一(日·히) 卽 顔面에서 一介라는 뜻에서 왔고 元來口를 가르키는 單語라고 할 수 있다.

※ 電氣技術士(發送配電)

即, 한시의 口라는 뜻을 가진 「히구지」가 分離하여 現在와 같은 兩國語로 된 것이다.

「구지」가 韓國語에서도 口를 뜻하는 單語로 使用된 實例은 아궁지(焚口)의 「궁지」를 들 수 있다.

또 文獻으로서는 三國史記地混志에 慶南昌原의 舊名이 屈自(구지·筆者·訓)이고 改名이 義安(입안, 筆者·訓)으로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數一을 뜻하는 數詞「하나」代身에 「히」가 使用된 理由는 하나고(鼻)의 「하나」와의 混沌을 防止하는데서 온 것 같다.

「히구지」即, 「이구지」에서 派生된 語彙는 「이구지」의 이에서 이우 即, 유우(日·言), 이야기(韓·話), 이바구(韓·方·話)가 있고, 「구지」에서 구후(日·食)가 있다.

口는 또 하나시(한시의 시)로도 불리우고 이 말에서 하나시(日·話)가 派生하고 있다.

또 口는 마시(높은데의 시)로도 불리우고 이 「마시」에서 말(韓話)과 머거(韓·食) 그리고 모오수(日·話)가 誕生하고 있다.

또 「구지」의 原形인 「구」에 數一을 뜻하는 「하」가 添加되면 「하구」即, 「아구」로 되어 日本語의 아고(顎)의 語源이 된다. 또 「아구」에서 韓國語 아가리「口」가 誕生하고 있다.

3. 頭(日·아다마, 韓·머리)

頭의 祖語는 하마(하나의 머리) 또는 이것이 變化한 「아마」로 풀이된다.

頭는 人體最高部에 位置하고 있어 自然界의 높은 것도, 「아마」로 命名되었다. 即, 天도 「아마」, 山도 「아마」 또는 「야마」, 家庭의 母親도 「아마 即, 어마」로 불리웠다.

이러한 派生語가 發達함에 따라 基本語인 아마(頭)는 派生語와의 混沌을 막기 爲하여 「아다마」로 變換것이 「일본어」로 되고, 같은 理由로 「아마시」 또는 「아마리」로 變하고 再次「마리」即, 「머리」로 變한 것이 韓國語로 되었다.

이러한 「아다마」와 「아마리」에서 派生한 語彙는 다마(日·球), 마리(日·述), 모리(日·森) 모로(韓·山), 마루(日·丸), 마루(韓·棟)가 있다.

頭의 韓國語別稱인 「대가리」는 「대」가 높다는 뜻이고 「가리」는 알(韓·卵)의 變化로 볼 수 있다.

또 頭의 日本語別稱인 「가시라」는 「가시」가 最高의 뜻이고, 「라」는 알(韓·卵)의 變化로 볼 수 있다.

4. 胸(韓·가슴, 日·무내)

胸의 祖語는 「가시무미」로 풀이된다.

「가시」는 하히(太陽)의 變化에서 오고 數一을 뜻한다.

「무미」는 多數의 物件 即 여기서는 多數의 骨 「日」호내을 뜻한다.

即, 全體로서는 하나의 뼈가 많은 곳을 가르킨다.

「가시무미」에서 發生하고 있는 語彙는 「가시」에서 까시(韓·刺)가 있다.

「가시」가 「가알」로 變하여 손가락, 깃가락의 「가락」이 派生하고 또 여기에 「라」가 添加되면 가라다(日·體軀)가 되고, 또 가리다(韓·隱蔽)가 派生하고 있다.

또 「가시무미」의 「무미」에서 몸(韓·體軀), 묻는다(韓·埋藏)가 派生하고 있다.

5. 腹(韓·배, 日·하라)

兩國語를 습한 「해하라」가 祖語로 看做된다.

「배」의 原形은 「해」이고 韓國語에서는 太陽을 가르치고 數一을 뜻한다.

「하라」는 큰알(大卵) 即, 큰物件의 뜻이다.

即, 「해하라」는 한시의 큰 物件의 뜻이 된다 「해하라」의 「하라」에서 派出된 語彙는 하라(日·平野), 벨(韓·平埋地) 또 하라무(日·孕)가 있고, 또같은 人體語에 屬하는 등허리(韓·脊), 옆구리(韓·腰)대노히라(日·手掌)가 있다 또 손바닥(韓·手掌)의 「바닥」, 혀바닥(韓·舌)의 「바닥」, 그리고 하다(日·旗)도 「하라」의 變化로 볼 수 있다.

또, 「해하라」의 「해」에서 배오(韓·孕), 해루(日·減), 하루(日·張), 부러(韓·增)가 있다

6. 臍(日·해소, 韓·배꼽)

臍의 祖語는 「해시」또 「헤고」이고, 그 뜻은

腹(배)의 子(韓, 시앗, 日·고).

「해시」가 變하여 「해소」로 된 것이 日本語이고, 「해고」가 「배꼽」으로 變한 것이 韓國語라 할 수 있다.

7. 手(日·대, 韓·손)

手의 祖語는 「두시」로 看做된다. 그리고 그 뜻은 二介의 物體이다.

「두시」가 「대소」로 變하고 이것이 分離하여 「대」는 日本語로 「소」即, 「손」은 韓國語로 된 것이다.

「대소」의 「대」에서 派生하고 있는 語彙는 대오(韓·觸), 때려(韓·打), 다다구(日·打), 다아오(韓·到), 쭈구(日·到)가 있다.

또 대루(日·出), 뜨오(韓·揚)도 있다. 그리고, 「대소」의 「소」에서 사와루(日·觸), 소사(韓·揚)가 있다.

8. 足(日·아시, 韓·발)

足의 祖語는 「두하시」로 看做되고 그 뜻은 二介의 큰 物體로 풀이된다.

日本語「아시」는 「하시」의 變化이고, 韓國語「발」은 「하시—하알—발」의 變化로 볼 수 있다.

「하시」에서 派生하고 있는 語彙는 하시루(日·走)가 있고, 「하시」의 「하」에서 하구(日·履) 「하시」의 「시」에서 신(韓·奮), 신오오(韓·履)가 있다.

또 「하시」가 「하알」로 變한것에서는 하야구(日·早速히), 빨리(韓·早速히)가 派生하고 있다.

또, 「하알」이 「아알」로 變한것에서는 아루구(日·步行), 걸어오(韓·步行)가 派生하고 있다.

또 「두하시」가 「두아알」로 變한 것에서는 다리(韓·脚), 달이오(韓·走)가 派生하고 있다.

9. 目(韓·눈, 日·매)

目的 祖語는 「두미」이고 그 뜻은 二介의 物體이다.

韓國語의 「눈」은 「두」에 該當되는 말이고, 이렇게 된 原因은 其他 「두」가 붙는 語彙와 混沌을 막자는데 있다.

「누」를 擇한 理由는 「눈물」의 「물」에 起因하

고, 「물」이 「누」로 變한 例는 늪(韓·沼澤地), 누마(日·沼)가 있다.

「누미」에서 派生된 語彙는 나미다(日·淚), 미루(日·見), 보오(韓·見), 눈매(韓·눈의模樣)가 있다.

10. 耳(韓·귀, 日·미미)

耳의 祖語는 「기기」 또는 「두기」였다고 풀이된다.

韓國語에서 드기오(聽)가 있고, 日本語에서는 기구(聽)로 나타나는데 있다.

「귀」는 「기기」의 變化로 볼 수 있다.

日本語에서 「기기」가 「미미」로 變한 理由는 頭髮의 語源이 亦是 「기」로 나타나는 데에 있다.

「미미」로 된것은 耳를 미기(下部의 기)로 表現하여 기(頭髮)와 區別 한데서 온 것같다.

11. 頰(日·호호, 韓·뺨)

頰는 顔面兩側에 있는 關係로 「호호」로 表現된 것이 그 祖語이고 「호」가 「물」받침을 取하여 複數로 된 「홀」, 이것이 再次「뿔」로 變한것이 韓國語라 할 수 있다.

12. 乳(日·지지, 韓·젖)

乳의 祖語는 「시시」였고, 이것이 「지지」로 變한것이 日本語이고, 「시시—지지—젖」으로 變한 것이 韓國語이다.

13. 毛(日·개, 韓·털)

毛의 祖語는 「기들」로 풀이된다. 그 뜻은 「기」의 群이다.

韓國語에서도 毛를 「기」로 불렀다고 볼 수 있는 證據는 羽毛의 「긴」것을 「깃」으로 부르는데 있다.

「기들」의 「기」에서 派生하고 있는 語彙는 깃(韓·羽毛), 길다(韓·長), 기모노(日·着物)가 있고, 「기」가 「개」로 變한 것에서는 개(日·毛) 개(韓·犬)가 있다.

또 「기」가 「겨」로 變한것에서는 겨털(韓·脇毛), 겨(韓·麥·稻毛)가 있다.

14. 臀(韓, 엉덩이 日, 시리)

臀의 祖語는 「아도히리」에 가까운것으로 푸리 된다.

그뜻은 「아도」가 日本語로 남아있는 後「아도」로, 그리고 「히리」는 日本語 腹「하라」의 變化로 볼 수있다. 即. 「後面의 넓은데」라는 뜻에서왔다.

15. 爪(日·수매, 韓·툼)

爪의 祖語는 「두미」이고, 「두」는 이두두(日·數五)에서 오고 多數를 뜻하고 「미」는 物體의 뜻이다.

即, 「두미」는 多數의 物體로 풀이된다.

日本語 「수매」는 「두미」의 變化이고 韓國語 「툼」은 「두미」의 短縮形으로 變化한 것이다.

16. 骨(日·호내, 韓·뼈)

骨의 祖語는 「호미」로 풀이되고 그뜻은 빨근 物體이다.

即, 骨은 取去되었을時 血液이 附着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불리운 것같다.

日本語 「호내」는 「호미」의 變化이고, 韓國語 「뼈」는 「호내」의 「호」가 變換한 것이다.

17. 顔(日·가호, 韓·얼굴)

顔의 祖語는 「가호얼곳」으로 看做한다. 그뜻은 「가」가, 外部(韓·가), 「호」는 赤色(日·호호), 그리고 「얼곳」은 結氷(韓·어려)하는 個所로 풀이된다.

「얼굴」을 뒷받침하는 말은 韓國語에서 顔의 別稱이 「낫」으로 即, 露出의 뜻으로 나타나는데 있다.

18. 肩(韓·어깨, 日·가라)

肩의 祖語는 「아기」로 풀이되고, 그뜻은 크게 나온 物體이다.

韓國語 「어깨」는 「아기」의 變化이고, 日本語 「가라」는 「아기다」의 「기다」가 變化한 것으로 본다.

「다」는 韓國語의 이다(有)를 뜻한다.

「아기」에서 派出된 語彙는 와기(日·脇), 옆(韓·橫), 어버(韓·負), 오후(日·負), 그리고 없다(韓·無)가 있다.

19. 心臟(韓·마음, 日·고고로)

心臟 即 마음의 祖語는 「마호고고라」로풀이되고, 그뜻은 「마」가 마(頭)即, 最高를, 「호」는 호호(頰)即, 赤色을, 「고고」는 脈動을, 그리고 「라」는 物體로 되어, 眞紅色의 脈動하는 物體가 된다.

20. 鬚(韓수염, 日 히개)

鬚의 祖語는 「수여히개」로 푸리되고 「수」는 男性, 「여」는 多數, 「히개」는 히구지(口의祖語)의 개(毛)의 短縮으로 푸리된다, 即 '男性에 많은 입가의 털'로 푸리된다.

以上 人體語檢討에서 人體器管의 名稱은 始初 「고」 「미」 「시」 또는 「알」이라는 原始語가 中心이 되어 成立되고. 이러한 基本語彙가 土臺로되어 周圍의 事物名稱이 定해졌다.

그리고, 周圍의 事物의 名稱이 人體語에 比肩되어 同一한 名稱이 賦與된 結果는 相互間에 混線이 나타남으로 人體語는 數量에 依據하여 識別할 수 있는 特徵을 살려서 原始語에 數一에 該當하는 太陽의 稱號가 結付되거나 또는 月의 稱號에 該當하는 名稱이 賦與되어서 漸次人體語가 發達해 나갔다.

그리고, 數詞에 依據하거나 또는 그 形態에 依據하여 造語된 이러한 人體語는 長期間 使用함에 따라 數詞等에서는 修飾語가 漸次 被修飾語의 뜻을 가지게 되어 이 時期에 가서는 兩者가 分離하여도 意志傳達이 되므로 兩者는 分離하기 始作한다.

그리고, 分裂한 修飾語와 被修飾語는 子音, 母音, 短縮, 複數等の 形態를 取하는 現象이 일어나는 것이 通例이다.

以上の 理論을 手를 뜻하는 「두시」를 擇하여 說明하며 手는 原始語에서 「시」다음 「두시」, 이 말이 「대소」로 變하고, 다시 分離하여, 「대」 그리고 「소」는 「손」으로 變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理論을 뒷받침하는 實例를 三國史

記地理志에서 求하면 慶南軍威의 舊名은 奴同覓 또는 奴豆覓으로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軍威는 韓國語 구멍(孔), 日本語로서는 구비(首)의 漢字를 利用한 音寫이고, 奴同即, 奴豆는 日本語의 노도(喉)의 音寫이고, 覓(覓)은 韓國語의 목(喉) 또는 肉(喉의 肉)의 「覓」의 音寫라는 것이 判明되어, 喉의 韓日兩國語가 未分離狀態로 나타난다.

本文에 나타난 韓日兩國語의 重要人體語의 祖語와 이祖語에서 誕生한 兩國의 現代語를 比較한結果는 別表와 같다.

人體語의 語祖

原始語	祖語	語意	韓國語	日本語
鼻 코	하나코	하나의 物體	코→코	하나

口 구	히구지	하나의 物體	히→입	구지
頭 마	하마	하나의 物體	마→머리	아(다)마
胸 무미	가시무미	하나의 많은 物體	가시무→무미→가슴	무내
腹 하알	헤하라	하나의 큰 物體	헤→배	하라
手 두시	두시	兩個의 物體	시→손	두→대
足 (두)하시	하시	兩個의 큰物體	하시→발	하시→아시
目 두미	누미	水分의 物體	누→눈	미→매
耳 기기	기기(미기)	—	기기→귀	미기→미미
頰 호호	호호	—	불	호호
乳 시시	지시	—	젖	지시
毛 기	기들	物體의 群	들→털	기→개
臀 —	아도시리	後面의 넓은데	응등	시리
鬚 —	수여히개	男性의 鬚	수염	히개
爪 두미	두미	多數의 物體	두미→톱	수미
骨 호미	호미	赤色의 物體	호→뼈	호내

◇ 韓國技術士會 各委員會 委員名單 ◇

政策委員會		財政委員會		編輯委員會	
委員長	委員	委員長	委員	委員長	委員
金圭泰	李瑠根	張建型	陸英洙	許 煥	文宗洙
李達雨	鄭炳瓊	姜泰旭	李錫祐	柳仁永	金松乙
李康鎬	金喆俊	尹梧燮	全兢烈	吳治成	李丞雨
劉憲一	崔錫煥	李敦永	秦秀雄	金炯珠	金斗煥
金瑑會					